시론

새해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강명국 목사
늘사랑교회

인류의 역사는 죽이고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다. 갖기 위해 죽이고 앞서기 위해 죽인다. 그리고 죽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죽는다. 처절한 역사가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을까?

구약시대 분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열왕기하 15장 이하) 죽이고 죽는 비극이 기록되어 있다. 제14대 왕 스가랴로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죽이고 죽는 살육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졌다. 결국 제19대 왕 호세아 9년에 앗수르에 의해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다. 북이스라엘 왕은 전부 19명이다. 모두 8번의 반역을 통해 왕을 죽이고, 왕좌를 빼앗는 역사가 반복된 것이다. 결국 죽인 자가 또 누군가에게 죽고 망한다. 죽인 자는 죽을 것을 걱정하며 산다. 빼앗은 자가 빼앗길까 걱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악순환은 계속된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더 많은 애를 쓰지만 결국은 죽는다. 빼앗은 자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장치를 해도 또 빼앗긴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일반적 원칙이다. 죽인 자가 죽고 빼앗는 자가 빼앗긴다. 그러나 살리는 자가 살아남고 주는 자가 받는 것이다. 살리고 사는 자들이 있다. 살리기 위해 죽는 거룩하고 고귀한 희생도 있다.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신의 천국을 포기하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다. 주님은 살리기 위해 죽고 다시 사셨다. 내 욕심이 살아있으면 끝없이 남을 죽이려고 한다. 내가 잡기 위해, 내가 살기 위해. 그러나 내가 죽고 내 것을 포기한 사람은 끝없이 살리는 일에 헌신한다. 주님의 길을 간 사람들이 그렇다.

리빙스턴이 그렇게 살다가 갔다. 한 편에서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사냥하듯 잡아 아메리카에 노예로 팔았다. 그러나 그는 그 노예사냥을 힘오하며 아프리카 흑인들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고 결국 자기 생명까지 바쳤다. 그를 기념하는 리빙스턴시가 잠비아에 있다. 그를 기념하는 박물관이 그의 기념 동상이 그 시에 서 있다.

행복한 사회, 행복한 교회 생활이 어떻게 가능할까? 살리는 삶이어야 한다. 살리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그런 삶이어야 하고 그런 말이어야 한다. 서로가 물어뜯지 않고 사랑하며 서로를 배려해야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우리가 추구하고 만들어야 할 세상은 총칼로 무장하고 약하면 죽는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벌한 생존경쟁을 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신 일이다. 물리적 힘이 아닌 사랑, 겸손, 용서, 나눔으로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여전히 권력 싸움 파워게임이 지속되고 있다. 서로 살겠다고 상대를 죽인다. 온갖 루머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비리를 파헤치기도 한다. 죽이겠다는 것이고 내가 살겠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죽인 세력들은 예수님을 할정에 몰아 넣기 위해 말꼬리를 잡았고, 증거를 조작했으며, 거짓증인까지 내 세워 예수님을 압박했고 결국 정치적인 방법과 대중들을 선동하는 여론 조작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요즘도 정치권의 극한 갈등들은 때마다 나타나고 이어지고 반복되고 있다. 자리다툼을 하고 치열한 정치 생명을 건 생존경쟁이 벌어진다. 누군가를 밀어내고 또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살벌한 싸움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일들이 교회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죽이고 죽는 세상이 아닌 살리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교회는 주님이 하신 일에 주목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럴 때 교회가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고 따뜻한 희망의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칼럼

현재의 시국과 그리스도인의 책임

장내성 목사
초대교회

며칠 전 중고등부 시절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친구들과 송년 모임을 위해 한정식집에 갔었다. 모두 남녀 친구 8명이 모였다. 그런데 널따란 식탁에 앉으며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오늘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자" 50여 년을 남녀 구별하지 않고 가까이 해 온 친구들임에도 혹시 정치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농담처럼 던진 이야기였지만 모두가 공감하며 웃었다. 요즘은 정치색이 다르면 부부도 함께 살기 힘들다고 한다. 보수당이 집권하든 진보당이 집권하든 개인의 실질적인 삶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데 말이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대부분이다. 정치인은 사실 이념 장사꾼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국민들은 정신이 없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이어진 대통령 탄핵. 대통령의 대행인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부엇인가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고 정치인은 국민을 통합하는데 앞장서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을 갈기갈기 쪼개고 있다. 친구, 목회자 심지어 부부와 부모 자녀간도 정치가 서로 눈치를 보게 만든 것이 제법 오래되었다.

대통령이 국정이 풀리지 않고 사사건건 방해와 반대를 하는 거대 야당에 의하여 국정 상황이 막히는 것이 답답했을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에 흥분하여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 여당은 맥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치 경험이 부족한 대통령은 과하지욕을 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그렇다면 야당은 오늘의 이런 후진적 정치 상황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것인가. 아니다. 매우 크다.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당연히 야당이다. 국민들이 거대 야당을 만들어 주었으면 그에 걸맞는 정치 활동을 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은 국가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콘크리트 지지층만 믿고 온갖 국가 시스템을 마비 시키는데 전념했다. 그 행태는 지금도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을까 봐 두렵기까지 한 수많은 범죄 혐의를 받는 자기당 대표를 감싸기 위해 국회와 정치판을 이용해 왔다. 겉으로는 법을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힘과 '폐법'으로 방탄을 삼는 거악의 모습을 보여 왔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정치의 감출 수 없는 낙후된 '민낯'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놓고 헌법 유린을 해도 막아서는 언론도, 정치인도, 법조인도 없으니 과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누가 지켜나갈지 심히 우려가 된다. 나라가 혼란과 격랑 속에 있을 때 미혹과 선전선동과 여론몰이와 매녀사냥이 극대화된다. 다수당이라 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으니 이는 나라를 북한 중국에게 바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 만에 하나 그리된다 해도 나라를 전복시킨 그들이 권력을 잡을까? 어불성설이다. 이성을 잃고 날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미래가 어찌될지 훤히 보인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법치주의 국가가 되도록 우리 모두 깨어 있어야 한다. 그를 위해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한다. 목회자가 깨어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정치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며 나라가 풍전등화 상태임에도 몇몇 교회 이외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분노와 좌절과 염려와 공포와 야욕과 거짓과 속임수와 혼란이 가득한 지금의 시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이겨내야 한다. 지금 이 나라에 간절히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발언이나 활동에 우선해 그리스도인의 단합된 기도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성경은 약속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결국 선이 악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社說

희년(禧年:Jubilee)을 선포하라!

우리는 2024년도의 강을 건너서 2025년도의 새 시대를 맞게 되었다. 새 시간, 새 나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새해는 전능(全能)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길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계엄선포의 실패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역할이 균형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계속되는 대통령 탄핵, 대통령 대행자의 탄핵 등, 정부의 중요 요인들에 대한 계속되는 탄핵의 정국은 우리 사회를 겨울보다도 더욱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이 땅이 되길 기대하고 바라는 길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희년(禧年: Jubilee)'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이다.

희년(禧年)을 '주빌리(Jubilee)'라고 부르는 것은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고 오십 년째 되는 해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희년은 대속죄일(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양각나팔(요벨)을 불어서 전 국민에게 백성의 죄가 사해졌음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이다. 이때 모든 것이 원래의 상태가 되는 원상회복이요(사 61:1-3), 복락원이요, 모든 권리가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은총이며,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약속이다(눅 4:18-19, 행 10:38). 희년이 선포되면 종으로 팔려 갔던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빚을 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고, 토지를 빼앗긴 사람은 토지를 돌려받게 하는 은혜이다. 그래서 희년을 자유의 해, 회복의 해, 기쁨의 해, 은혜의 해 등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다. 혼돈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희년(禧年)의 새해를 열어가는 지혜와 은총을 기대해보자.

우리의 현실이 이러한 가운데 과연 이 난국을 헤지고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기 위한 길은 무엇일까?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인한 탄핵정국과 내란과 이적죄에 대한 정치적 이견과 시민들의 갈라진 갈등과 온갖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으며, 여론은 매녀사냥식 보도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 포퓰리즘(Populism)에 매달리고 있다. 지금 국가는 총체적으로 요동치고 있어서 강풍에 휘말리고 암초에 걸려서 침몰 직전의 배와 같다. 이 상황에서도 정치인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도, 정권을 잡기 위한 온갖 권력의 궤계들만 판을 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이 바라는 희망은 과연 무엇이며, 어디에 두어야 하겠는가?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회복되며, 외교적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에 빛을 발하는 부흥의 새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야 하겠는가?

희망의 새해지만 우리의 정치는 혼란스럽고, 사건 사고들로 민심은 우울하다. 그렇지만, 창조주의 원리와 법칙에 따라 정의와 공평이 온전하게 실행되는 공의로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소망을 갖어야 할 것이다. 먼저, 국민이 건전한 자유 민주시민 의식을 발휘할 기준은 성경적 올바른 가치관 위에 세우는 것이다. 또한 헌법에 기초한 법치가 잘 작동되도록 국가관과 시민의식을 합양하여 정의의 편에 서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같은 신앙과 모르드개와 에스더 같은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그리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기를 기회로, 혼란과 불안의 터널을 지나 희망의 새해를 살게 하실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결신문사
등록번호 서울 다 50663(2003년 9월 17일 창간 /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을 준수합니다.

발 행 인 김 만 수 사 장 강 병 익 편 집 인 권 순 달 인 쇄 인 배 성 한
(주)성결신문사 030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가길 11(행촌동 1-29 총회회관)
대 표 전 화 070-7132-0091~5 홈 페 이 지 www.sknews.org
광고 신청 안내 070-7132-0091 독자기고 · 제보 sknews12@daum.net
● 구독료 : 1개월 4,400원 / 1년 44,000원(VAT 포함)
● 후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533301-01-16871 4(주식회사 성결신문사)

본지 구독후원운동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
김부열 류호근 유재경 이신현 장대영

(장로)
김인철 김희영 동청웅 박명신 유광영 이성일
이인목 이종선 이헌평 주재환 조용배

(교회)
생명줄 우도제일 주사랑 주이루리

(기타)
권계란 한상율 실로암선교센터

※ 교회명으로 입급 시 교단명을 제외한 8자 이내 교회명으로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12월 31일 입금분까지 반영. 가나다 순〉

구독후원금 납부운동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샬롬!

그동안 예성의 교단지인 성결신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독해 주시고 기도와 후원금과 광고로 협력해 주신 전국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안드립니다.

저희 성결신문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국교회 교직자님들의 애정이 담긴 후원을 힘입어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 저희 신문사도 교단 산하의 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족하지만 작은 부분이나마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회에서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저희가 교단산하 교회와 장로님들께 발송해 드린 성결신문에 대하여 문서선교적인 차원에서 2024년도 구독후원금 44,000원을 부탁드리오니 발송된 지로용지나 국민은행 533301-01-168714(예금주: (주)성결신문사)로 송금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성성결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알찬 신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일
성결신문사